창 간 정 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933호 The Seungni Shinmun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태양이 어두워지고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산다

구세주는 성령의 빛, 이슬성신의 분신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구세주라는 사람은 본체가 불덩어리입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시작함으로써 죄에 오염된 모습, 즉 인두겁을 쓰게 되었고 하나님의 빛이 되는 불덩어리는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손만 대면 까무러치는 것은 마귀가 죽으면서 그냥 죽지 아니하고 물귀신처럼 사람 속의 생명까지 안고 죽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본체가 불덩어리인 고로 당신의 손에서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적마다 이슬성신이 찍혀 나오는데, 그 이슬성신은 일종의 빛입니다. 창세기서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모양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빛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 있게 되어 있는 고로 오늘날 이제 이슬성신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식인 고로 하나님의 신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기만 이루어지면 바로 인간 자체가 빛으로 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현재 역곡에 있지만, 구세주의 분신이 미국에도 가 있고 일본에도 가 있고 세계 도처에 가 있는데, 이는 구세주의 분신이 빛이 아니고서야 셀 수 없는 분신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인류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빛으로, 이슬성신의 분신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빛은 피와 불과 연기기둥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마지막 때에 구세주가 부어주는 승리의 영입니다. 승리의 영을 부어줘서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사망의 신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승리의 영을 부어줘서 승리의 영을 심어주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되려면 죄인 속에 있는 사망의 영이 없어져야 그 죄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불덩어리의 몸으로 변하여 썩을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생명의 물질이 함유된 공기만 마시고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음양의 속성을 지닌 태양이 어두워지고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무극경지의 빛(하나님의 빛)으로 살게 된다

인간의 몸이 불덩어리와 같은 하나님의 빛으로 먼저 화하고 순차적으로 이 세상 만물이 빛으로 화하는 고로 그 세계는 찬란한 빛의 세계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불덩어리가 되어 날아다닐 때에는 영생의 신의 실체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빛에 관련된 구세주의 말씀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빛으로 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빛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슬성신을 먹으면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겁니다. 천년만년이 흘러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세계는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대로 천년만년 흘러도 똑딱하는 순간에 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에 등불이 어두워지고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온 세상 만민들이 살게 됩니다. 구세주 얼굴에서 나가는 빛이 곡선광선이기 때문에 그늘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지고 항상 낮입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들이 그늘이 없는,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잠을 안 자도 피곤함이 없는 항상 이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는, 쾌락 속에서 사는 그런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세주께서는 태양 빛도 소멸되고 또한 별빛도 소멸되고,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곡선광선에 의해 온 우주가 밤이 없는 광명한 신천신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피곤한 것이 없고 피곤한 것이 없으니 잠자지 않는 세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중성광으로 쾌감을 주는 빛인 고로 그 빛을 받는 자는 웃음과 즐거움이 떠날 날이 없고, 병에 걸리려야 걸릴 수 없고, 늙으려야 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이란 고통이 있어야 오는 것이고, 늙음도 고통이 있어야 오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업이나 어떤 일에 실패하여 낙망할 때 다시 힘내라고 북돋아 주는 말로 쓰여 왔으나, 사실 이 말속에는 하늘의 기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땅끝 땅 모퉁이 한반도에서 출현한 동방의 의인,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꼬불탕꼬불탕 곡선으로 휘어져 나가는 고로 지그재그로 된 쥐구멍도 환하게 비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

"죄란 무엇인가?"

욕심을 부리면 피가 더러워집니다. 피는 몸속에서 썩고 이 썩은 피에서 병균이 발생하여 병이 들고 늙어서 결국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만병의 근원이요, 늙음의 원인이며, 사망의 요인입니다.

이 욕심과 죄는 나라는 주체의식을 근원으로 하여 수천수만 가지로 뻗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 자체가 사망의 근원이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본체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선악간의 행위 일체가 죄요, 마귀인 것입니다. 죄란, 내 생명의 피를 썩게 하며, 나를 영육 간에 죽게 만드는 모든 요소, 곧 마귀인 나로부터 비롯된 일체의 생각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망의 근본인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비로소 내 속에 갇혀있던 내 본체의 영인 하나님이 석방되어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장해 주는 온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기적을 불러오는 덕담

무심코 던진 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이 평소에 하는 말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말은 에너지다. 좋은 에너지를 충전시켜라. 말에는 각인효과(刻印效果)가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얼굴은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바꿔라. 목소리는 밝은 음색(音色)을 만들어라. 목소리 색깔이 변하면 운세도 변한다. 발성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라. 말에는 정성을 담아라.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 성취의 밑바탕이다. 통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뜨린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안 되는 일만 연속된다. 투덜대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다. 없는 말을 퍼뜨리면 재앙이 따른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긍정적인 언어로 복을 지어라.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언어가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린다.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말하라.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괜히 다른 사람의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을 가라. 대화에도 질서가 있다. 끼어들기, 가로채기, 앞지르기는 3대 재앙이다. 두고두고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거든 용서를 빌고, 상대가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깃든다. 말에는 견인력(牽引力)이 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를 상용어로 사용하라.

좋은 글이 인성(人性)을 변화시킨다.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라. 좋은 책은 소리 내어 읽고 또 읽어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목소리는 낮춰라. 조용한 소리가 오히려 위력이 있다. 험담하지 마라. 특히 임산부의 험담은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실험 결과에 주목하라. 죽는소리를 자주 하면 죽을 일만 생긴다. 그것이 말의 영향력이다. 상처 주는 말은 암보다 위험하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라. 좋은 파장이 공유된다. 시인은 대부분 행복하다. 용어의 선택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장점은 있다. 장점을 찾아 길러주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칭찬은 덕담 중의 덕담이다. 칭찬하는 습관을 길들여라. 만년 꼴찌에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훈련을 시켰더니 점점 성적이 좋아지더니 우등생이 되었다. 10년간 허덕이던 회사가 전 사원의 덕담 훈련으로 위기를 넘겼다. 위기의 부부 150쌍의 언어습관 교정 결과, 146쌍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업보(業報) 중에 가장 무서운 업보가 구업(口業)이다.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라. 옷뿐만 아니라, 말도 맞춤이 있다. 좋은 말을 열 번 해도 나쁜 말 한 번으로 인간관계를 망치게 된다. 자동차도 욕먹으면 계속 고장이 난다. 물질에도 언어가 전달된다.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과 거래하라. 말에 사랑이 깃들어 있다. 남 탓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 욕먹었다고 화내지 마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 돌아간다. 입이 가벼우면 실패가 겹친다. 말도 수련이다. 힘이 되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해라. 좋은 말은 최고의 서비스다. 겸손하면 진정성이 올라간다. 자신을 낮춰 말하라. 적당할 때 말을 끝내라. 장광설은 쇠귀에 경 읽기다. 사용하는 언어를 점검하라. 날마다 덕담을 해보라.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완벽하고 조리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어

《관련 설교를 5면, 6면, 7면 전격 게재》
— TV방영 총4회 중 첫회분 영문번역 —

THE ETERNAL LIFE NEWS: SEUNGRI BOEBO Published Weekly by THE SEUNGRI JEIHAN Publishing Office, Tokkaido

「이긴자」 뉴욕에 클로즈 업 高大 영생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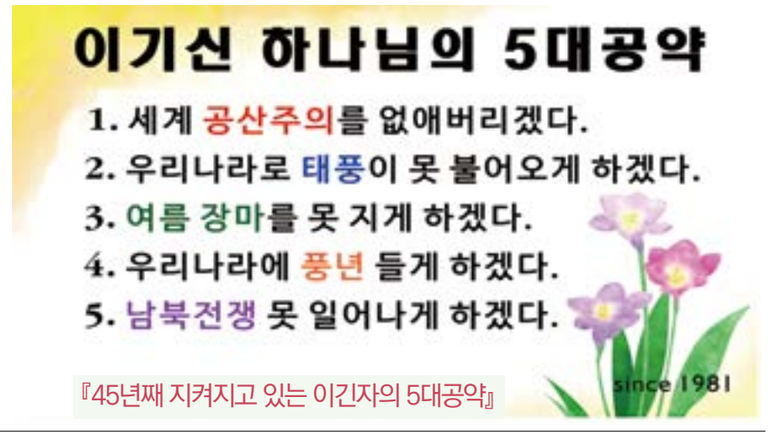
— 뉴욕일보에 게재, TV인터뷰 마쳐 —

〉30분씩 4회 방영예정〈

뉴욕일보

▲ 승리회보 제94호 1면 헤드라인 캡처

1987년 9월 5일 제4차 세계 전도 순방길에 오르신 이긴자 조희성님은 첫 도착지 미국 뉴욕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셨다. 그 당시 미국 뉴욕방송국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조희성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방송녹화를 성공리에 마쳤고, 2시간에 해당하는 방송녹화분량을 30분씩 4회로 편성하여 1차로 1987년 9월 27일에 TV방영되었고 2차는 10월 4일에 방영되었고 3차는 10월 11일, 4차는 10월 18일에 연재로 방영되었다.

당시 방송국에서 있었던 이긴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말씀]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이제그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본 예가 없습니다. 단상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염려하면서 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설교는 하지만 설교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뉴욕방송국에 가서 방송할 때.. 우리 교포들이 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를 쓴 기록을 가져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나는 그러한 설교 대본을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단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한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한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두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두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세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세 시간을 말하고 다섯 시간 말하라고 하면 다섯 시간도 말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서 깜짝 놀래요. "유명한 이제 통일교 목사 문선명이도 설교 대본을 써가지고 와서 방송을 했고 또 조용기 목사도 역시 설교 대본을 가지고 와서 그 설교 대본을 읽는 그러한 설교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나더러 목사라고 합디다. (2003. 6. 9.)*